2026년 11월 20일

Hana FX Daily Letter

한국 수출 1조 달러 달성, 환율과 경제적 영향

하나은행
외환파생상품영업부
이유정 연구원

달러/원 전망 및 동향

• 금일 전망 : 달러 강세와 위험회피 분위기에도 수급 영향으로 상승폭 제한
daily range 예상: 1,330~1,340원

▪ 연준 인사들이 인플레이션 대응 의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긴축 경계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뉴욕증시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며 글로벌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확산됨. 이에 달러인덱스가 104선에 근접하는 등 강달러 이어지면서 환율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우리나라 수출액 1조 달러 달성 등에 따른 달러 유입 지속 기대와 수출업체 매도물량 유입 등에 상단 제한될 전망.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은 1,330원대 초중반을 중심으로 등락할 것으로 예상

▪ **전일 동향 : 19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대비 0.4원 오른 1,334.1원 마감**
장 초반, 수출업체 네고물량 출회 등 매도 우위 수급 여건에 힘입어 1,320원대 후반으로 하락. 하지만 연준 긴축 기조 강화 경계감 속에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반등, 1,330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침. 이어진 야간장에서는 뉴욕증시 기술주 급락하며 리스크오프 분위기가 확산되자 1,330원대 중반으로 상승해 마감

국제 통화시장 이야기

▪ **(달러인덱스)** 연준의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의지와 뉴욕증시 기술주 매도세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가 맞물리면서 달러 강세 흐름이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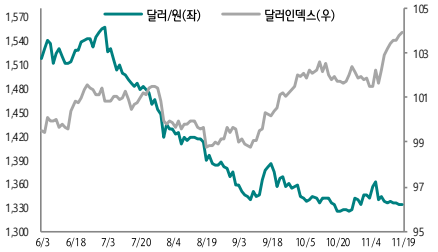
▪ **(유로-달러)** ECB 주요 인사들이 매파적 발언을 연달아 내놓고 있으나, 연준의 긴축 기대가 우위를 보이면서 유로화는 약세 압력을 받음

▪ **(달러-엔)**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과 물가 2% 안정 의지를 강조한 우에다 BOJ 총재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미-일 금리차 지속 우려가 이어지며 엔화 약세폭 확대됨

하나에서 전해주는 FX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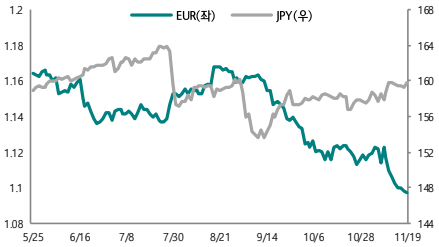
▪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국가에 진입했음. 이러한 성과는 국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외환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특히 수출 호조와 맞물린 원화 강세는 기업의 대외 경쟁력과 가계의 구매력에 상반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에 주목할 필요. 일반적으로 원화 강세는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출대금의 원화 환산 규모를 감소시켜 기업 채산성에 부담으로 작용함. 반면 수입물가 하락을 통해 기업의 원자재 조달 비용을 낮추고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높이는 등 내수 부문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최근 한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원화 가치가 10% 절상될 경우 내수기업은 수출기업 대비 영업이익률과 투자율이 각각 0.5%p, 3.9%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가계의 연간 생활비도 평균 16.5만 원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바탕으로 한 우호적인 외환 수급 여건이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이에 향후 환율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대내외 변수뿐만 아니라 원화 강세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원화 환율 추이



구분	시가	고가	저가	NDF
달러/원	1,333.5	1,335.6	1,327.0	1,334.7

주요 통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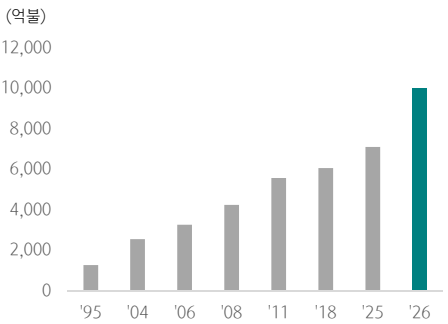


구분	EUR/USD	USD/JPY	USD/CNH
종가	1.0967	159.72	6.6938
전일대비	-0.0008	+0.37	+0.0249
재정환율	1,461.21	834.15	199.54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시간	지표	예상	이전
16:00	영국 10월 소매판매(MoM)	0.0%	-0.4%
22:25	윌러 연준 이사 연설		
00:00	미국 11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51.6	51.0

한국 수출액 기록 추이



주: '26년은 11.19일(14:09)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투자 등 금융거래는 본인의 책임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본 정보는 상품 가입 권유 및 유인 목적이 아닌, 고객 앞 참고를 위한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